

철학과에서의 마지막 학과생활

09학번 고유석

저는 올해로 마지막 학교생활을 하게 되었고, 4학년 학과 대표라는 자리에 있으며 6,7,8살 차이나 나는 동생들과 어떻게 하면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도 마지막 학과 생활인만큼 좀 더 많은 추억을 남겨보고자 학과생활에 열심히 임했습니다. 이번에 사실 저는 올해 학과생활을 하면서 해보지 못한 경험들도 많이 해보았고 느낀 점도 꽤나 많았습니다. 사실 가장 대선배지만 위엄 차리는 선배보다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유쾌한 형이자 선배로 남고 싶은 마음이 컸고 그렇게 장난기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면서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후배들과 서로 거리낌 없는 사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흥이날철 철학과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학과 행사를 준비하고 치르는데 큰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저는 엠티 때 mc라는 것을 처음 경험해보았고 많이 미숙했던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도한 것 치고는 정말 나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농구를 워낙 좋아해서 진양체전 같은 체육대회 때 농구선수로 항상 나가었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농구선수로 철학과를 대표해서 나가게 됐고 비록 경기는 졌지만 제 마지막 대학생의 젊음을 농구연습을 열심히 하면서 불태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엠티 때, 체전 때 서로 단합된 모습을 철학과라는 곳에서 볼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학과생활을 시작한 것은 2014년도부터였는데 2016년도 들어서

제일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재미있는 학과생활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과 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마웠던 사람'은 다름 아닌 이번년도 학회장을 맡았던 이대섭 학우였습니다. 학과 생활의 시작을 대섭이의 권유로 시작했고 덕분에 정말 많은 추억을 쌓았고 철학과 내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마지막 학과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지만 그동안 정말 올해 한 해 동안 열심히 학과행사를 준비해준 흥이날철 철학과 집행부원 여러분들 모두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꼭 하고 싶네요 ㅎㅎ 그리고 모든 학과행사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준 철학과 재학생이자 후배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이라 정말 묘하기도 하고 그간 정 두었던 철학과를 떠나려니 정말 아쉽고 시원섭섭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이제는 개인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년도를 마지막으로 저는 졸업하지만 꼭 성공해서 고마웠던 후배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